



**aT-농식품부, 고령층·영양사에 국산 콩 홍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고령층 영양개선 캠페인'을 통한 국산콩의 소비 활성화에 나섰다. 오는 10월까지 고령층 2000여 명 및 노인시설 영양사 100명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7일 공사에 따르면 aT는 4일 전북 전주 평화사회복지관을 찾아 '국산콩 활용 고령층 영양개선 캠페인' 현장을 점검하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aT



**시멘트업계, 강릉 가뭄에 생수 6만병 전달**

시멘트산업사회공헌재단은 강원지역기후위원회, 한라시멘트와 함께 강원 강릉시청에 생수 6만병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왼쪽부터)강릉기물관리위원회 심교화위원장, 강릉시 김상영 부시장, 시멘트산업사회공헌재단 심용석 사무총장, 한라시멘트 신승근 상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멘트산업사회공헌재단



**현대차, '캐스퍼 취향 충전소' 팝업 전시 진행**

현대자동차가 오는 14일까지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북한문화공간 센스에서 '캐스퍼 소셜 클럽: 캐스퍼 취향 충전소' 팝업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캐스퍼 오너들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 캐스퍼만의 아이코닉한 매력을 경험하고 자신의 취향도 발견할 수 있는 각종 체험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현대차



**BNK부산은행, 지역 축제 후원금 3.7억 전달**

BNK부산은행은 부산 지역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를 후원하기 위해 3억7000만원 규모의 후원금을 부산축제조직위원회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BNK부산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방성빈 BNK은행장(오른쪽 세번째)과 박형준 부산시장(오른쪽 네번째), 남덕현 부산축제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BNK부산은행



**건국대-신한은행, 상호 공동발전 '맞손'**

건국대학교가 지난 4일 건국대 행정관 대회의실에서 신한은행과 상호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왼쪽부터)원종필 건국대 총장과 정상혁 신한은행 은행장이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건국대

# 유통업계, 생수·구호물품 기부로 강릉 가뭄극복 힘보태

쿠팡, 2리터 생수 20만병 지원  
신세계, 총 27만병 생수 전달  
BGF리테일·GS리테일도 기부

강원도 강릉시(강릉) 지역이 가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통업계가 지원에 나섰다. 신세계그룹, 쿠팡, GS리테일, BGF리테일 등 기업들이 전국 단위 물류망을 활용해 생수 등 구호 물품을 기부하는 등 긴급 지원에 나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2리터 생수 20만 병을 지원하며 힘을 보탰다. 쿠팡은 지난 3월 경북 의성 산불, 7월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도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등 꾸준한 지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시민을 위해 생수를 후원해 주신 쿠팡에 감사드립니다"며 "따뜻한 온정에 힘입어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은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신세계그룹은 3일 이마트를 통해 2리터 생수 20만 병, 스타벅스를 통해 7



가뭄 상황 속 전국 각지에서 온 구호물품의 모습. /뉴시스

만5000병 등 총 27만 병의 생수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해 전달한다. 강릉 지역 스타벅스 임직원들은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에 직접 생수를 배달하고 자발적인 봉사활동에도 나설 예정이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3일 행정안전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구축한 국가 재난 긴급 구호활동 'BGF브릿지'를 즉각 가동했다. BGF로지스 강릉물류센터에서 생수 3000여 개를 긴급 배송하며 현지 상황에 대응했다. BGF리테일은 2015년부터 업계 최

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유통업계가 전국에 뻗어있는 물류망과 점포를 활용해 신속한 지원에 나설 수 있었다. BGF리테일과 GS리테일은 전국에 있는 자사 매장 인프라를 물건을 기부하는 중간다리로 활용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성금 전달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유통업계 인프라가 재난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구호 플랫폼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재난 극복을 위한 유통업계의 사회적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근 강릉 지역은 극심한 가뭄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6개월 강수량은 336.7mm로 평년 대비 36.8%에 불과하다. 이달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2.8%에 그친다. 강릉은 물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이달 6일 오전 9시부터 시내 아파트 113곳과 호텔 10곳의 수도물 공급을 중단하는 등 비상조치에 들어갔다.

GS리테일은 GS25와 GS더프레시 등 자사 인프라를 활용해 2리터 생수 1만 병을 긴급 지원했다. GS리테일은 지난 2005년부터 태풍, 산불 등 재난 상황마다 구호 물품을 지원해왔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전국 사업망을 기반으로 지역 사회의 든든한 안전망 역

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유통업계가 전국에 뻗어있는 물류망과 점포를 활용해 신속한 지원에 나설 수 있었다. BGF리테일과 GS리테일은 전국에 있는 자사 매장 인프라를 물건을 기부하는 중간다리로 활용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성금 전달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유통업계 인프라가 재난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구호 플랫폼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재난 극복을 위한 유통업계의 사회적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근 강릉 지역은 극심한 가뭄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6개월 강수량은 336.7mm로 평년 대비 36.8%에 불과하다. 이달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2.8%에 그친다. 강릉은 물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이달 6일 오전 9시부터 시내 아파트 113곳과 호텔 10곳의 수도물 공급을 중단하는 등 비상조치에 들어갔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 LG, 청년 AI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LG 에이머스 해커톤' 열어  
4개 계열사, 채용 박람회 참여

LG가 청년 인공지능(AI)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LG는 6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도 이천 LG인화원에서 AI 기술로 산업 난제를 해결하는 실전형 해커톤 프로그램 'LG 에이머스 해커톤'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LG 에이머스 7기 지원자 2570명 중 온라인 교육부터 해커톤 온라인 예선까지 2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올라온 102명이 참가해 AI 전문가로 성장할 기회를 얻었다.

이번 주제는 LG 계열사인 디앤오(D&O)가 출제한 '곤지암 리조트의 식음업장을 찾는 고객들의 메뉴 수요 예측 AI 개발'이다.

휴양지 리조트 내에 있는 식음업장의 수요는 요일과 계절, 연휴 일정 등 다양한 외부 요인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또 각 업장별로 고객층과 메뉴 구성, 운영 방식이 달라 고객들의 수요를 정밀하게 예측하는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데이터 분석 및 AI 역량이 필요하다.

참가자들은 곤지암 리조트의 방문객 수와 업장별 매출 데이터 등 실제 리조트 데이터를 활용해 식자재 관리, 효율적인 인력 배치, 고객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하며 실전 경험을 쌓았다.

LG는 대회 이튿날인 7일 LG AI연구원,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LG CNS 등 4개 계열사가 참여하는 채용 박람회를 진행했다.

LG는 대상(고용노동부장관상)과 최우수상(LG AI연구원장상) 등 상위 수상 3개 팀을 선정해 오는 10월 중 서울 마곡 LG AI연구원 본사에서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 소진공, 솜품 통해 골목상권 매력 알린다

국민참여 솜품 공모전 열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5년 경이로운 소비 국민참여 솜품 공모전'을 개최한다.

7일 소진공에 따르면 지역상권의 활력을 높이고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여는 공모전은 ▲전국 야시장 숨은 맛집 ▲우리 동네 골목형 상점 ▲소상공인 협동조합·사회적경제기업 구매후기의 세 개 분야로, 국

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최대 5명)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10월 15일까지 주제별 솜품 영상을 제작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한 작품은 1차 위원회 심사와 2차 대국민 투표를 거친다.

소진공은 접수받은 제안 내용에 대해 주제 적합성, 표현성, 완성도, 대중성을 기준으로 심사에 소진공 이사장과 온누리상품권을 포상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

## 환경부, 아·태 기후변화 대응 현황 점검

'서울 정책구상' 정책 토론회

환경부가 이달 8~9일 이틀간 태국 방콕에서 제20차 녹색성장에 관한 '서울 정책구상' (서울이니셔티브·SI)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서울 정책구상은 지난 2005년 서울에서 환경부와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제5차 아시아-태평양환경개발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제안한 역내 협력사업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

에 따른 환경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됐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파리협정 채택 10주년을 앞두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3.0 이행 가속화: 아태지역의 기후회복력 있는 발전'을 주제로 열린다.

이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와 같은 뜻으로 파리협정에 따라 각 당사국이 전 지구적 기온상승 억제를 위해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해, 5년마다 제출하는 기후변화 대응 목표다. 유엔에 올해 하반기 제출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에쓰오일, 생성형 AI 활용 솜품영상 공개

황쏘가리 치어 방류 현장 재구성

에쓰오일(S-OIL)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솜품 영상을 제작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는 사회공헌 활동 현장을 사진으로만 기록해왔으나 영상을 통해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는 방식을 도입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가치 확산에 나섰다.

최근에는 임직원 가족과 대학생 천연기념물지킴이단이 참여한 황쏘가리 치어 5000 마리 방류 봉사활동 현장을 AI로 재구성해 스토리텔링 영상으로



에쓰오일, ESG 가치 담은 AI 솜품영상. /에쓰오일

제작,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또한 본사 사옥 글판의 계절별 메시지를 AI 영상으로 제작해 인스타그램에 선보였다. /원관희 기자 wkh@

### 인사

◆파이낸셜뉴스 △도쿄특파원 서혜진

### 부음

▲정구용(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인디그룹 회장)씨 별세, 김옥환 씨 배우자상, 정혜승, 정장환, 정혜은 씨 부친상,

이철희, 김우석 씨 빙부상 = 6일 별세, 가톨릭 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례식장 31호, 발인 9일. 02-2258-5940  
▲강명자씨 별세. 최해덕씨 부인상, 최현석(고용노동부 대변인)·최현철씨 모친상, 김소영씨 시모상 = 7일 오전, 세종충남대병원 장례식장 VIP 1호실, 발인 9일 오전 6시 40분, 장지 세종 은하수공원. 044-863-4444